

아우가 형님 앞질렀다...기아, 현대차 꺾고 내수 1위

국내 자동차 시장 판도 변화

국내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심상치 않다. 그동안 국내 승용차 판매순위 1위를 굳건히 지켜왔던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처음으로 기아에게 자리를 내줬다. 또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만년 5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쌍용자동차가 3위로 치고 올라왔다.

기아는 '대체불가능한 패밀리카' 카니발을 비롯해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쏘렌토라는 강력한 무기를 내세워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쌍용차도 야심차게 준비해 출시한 '신종 병기' 토레스를 선봉으로 총공력에 나서고 있다.

5일 카이즈유틸리티연구소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현황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달 총 3만7371대의 승용차 등록 대수를 기록하며 국산 브랜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현대차의 승용차 등록 대수는 2만 6613대로 집계됐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등록대수(9380대)를 포함해도 3만5993대다. 현대차와 제네시스를 모두 더해도 기아보다 1378대가 부족하다.

이처럼 기아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차의 승용차 등록 대수를 앞지른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비록 1~8월 누적 등록 대수는 기아가 31만5237대로, 현대차(제네시스 포함 34만8080대)에 뒤지

'대체불가' 카니발·'독보적 존재감' 쏘렌토 앞세워 지난달 3만7371대 등록...현대차 3만5993대 2위 '만년 5위' 쌍용차, SUV 토레스 덕에 3위로 '썰렁'

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기아가 처음 현대차의 판매 대수를 넘어서는 등 최근 기아의 선전은 눈여겨 볼만하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승용차 기아는 지난달 승용차 등록 대수 1위를 차지한 쏘렌토와 카니발 등 레저용 차량(RV)을 주력으로 내세워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더해 K8 등 세단도 꾸준한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승용차 판매순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달 가장 많이 팔린 승용차 모델은 기아의 쏘렌토로, 쏘렌토는 총 6165대가 등록됐다. 이어 현대차의 베스트셀러 모델 그랜저가 4893대로 2위, 3위는 기아 카니발(4660대)이었다.

국산 승용차 1~2위 자리 다툼 외에도 3위 경쟁 역시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국산 승용차 3위는 일명 '르쌍쎄'(르노코리아자동차·쌍용차·한국GM)로 불리는 외국계 완성차 3사 중 한국GM과 르노코리아가 번갈아 가며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늘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던 쌍용차가 한국GM과 르노코리아를 추월하는 기염을 토했다.

최근 KG그룹으로 인수된 쌍용차는 지난달 등록 대수 6375대를 기록해 국내 승용차 판매 3위로 뛰어 올랐다. 르노코리아와 한국GM은 각각 3753대와 3534대로 파악됐다.

특히 쌍용차는 올해 누적 등록 대수에서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쌍용차의 1~8월 누적 등록대수는 4만2877대로, 르노코리아(3만4685대)와 쉐보레(2만5027대)를 앞섰고 있다.

이처럼 쌍용차의 선전은 최근 출시한 준형 SUV 토레스의 덕이다. 코란도와 무쏘의 부활이라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탄생한 토레스는 지난달 3431대가 등록되는 등 국내 SUV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에 더해 인기 모델의 신차 효과 등으로 국내 승용차 브랜드들의 판매 대수 순위의 변동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의 국내 승용차 판매 대수가 지난달 처음으로 현대차를 넘어섰다. 지난달 판매 1위를 기록한 기아의 쏘렌토(위)와 2위 현대차 그랜저(아래 왼쪽), 3위 기아 카니발.

기아, 신차 내고 '가속페달'

연식 변경 '더 2023 K3'·'더 2023 K3 GT'



고객 선호 사양 기본화·신규 디자인 사양 적용

기아는 5일 연식 변경으로 상품 경쟁력을 높인 '더(The) 2023 K3'와 '더 2023 K3 GT'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더 2023 K3는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화해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신규 디자인 사양 적용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인포테인먼트 기능에 대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 모니터 ▲샤넬 안테나가 포함된 신규 패키지를 주력 트림인 프레스티지에 기본 적용했으며 엔트리 트림인 트랜디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모든 트림에 LED 실내등(맵램프, 톱램프)을 기본 적용하고 프레스티지에 메탈 페달과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독립제어 풀오토 에어컨 등을 기본화했다.

이밖에 기존의 ▲트랜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4가지 트림을 ▲트랜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등 3가지 트림으로 재구성해 고객이 보다 쉽게 트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아는 최상위 트림 시그니처에서 선택 가능한 신규 디자인 패키지 '블랙'도 운영한다. 블랙 패키지에는 ▲17인치 블랙 휠 ▲아웃사이드미러 블랙 커버 ▲블랙 리어 스포일러 ▲사이드실 몰딩 등으로 구성돼 역동적 이면서 세련된 느낌을 강조했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기아는 이날 더 2023 K3 GT도 함께 선보인다.

더 2023 K3 GT는 기존에 선택 사양으로 운영하던 ▲10.25인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구간·곡선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LED 실내등(맵램프, 톱램프)을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한층 강화했다.

더 2023 K3의 판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 ▲트랜디 1752만원 ▲프레스티지 2071만원 ▲시그니처 2449만원이다. 단일 트림(시그니처)으로 운영되는 더 2023 K3 GT는 2724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상품성 개선 '더 뉴 기아 레이'



전 좌석 폴 폴딩으로 공간 활용 극대화

기아는 더 뉴 레이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기아 레이'(The New Kia Ray)를 출시하고 판매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레이는 차로 유지 보조(LFA), 운전석 통풍시트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첨단 전자 보조 시스템 및 편의사양을 탑재하고, 운전석을 포함한 전 좌석 폴 폴딩 기능이 가능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또 전면부는 '스타랩 시그니처 라이팅'과 깔끔한 센터 가니쉬(중앙부 장식)로 '타이거 페이스'를 레이에 맞게 재해석한 디자인을 적용했고, 새로운 범퍼로 단단한 인상을 강조했다.

실내는 신규 클러스터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모던한 이미지의 '라이트 그레이 인테리어'를 추가했다.

이밖에 앞좌석 폴 폴딩 기능과 뒷좌석 슬라이딩 6대 4폴딩 기능으로 모든 좌석을 접는 '폴 플랫'이 가능해 실내공간의 활용성을 높였다.

기아는 레이에 다양한 첨단 전자 보조 시스템과 편의사양을 새롭게 적용해 상품성도 향상시켰다.

차로 유지 보조와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BCA), 하이빔 보조(HBA), 크루즈 컨트롤(CC)을 비롯해 후방 교차충돌방지 보조(RCCA)와 안전 하차 경고(SEW)도 적용했다.

고객 선호도가 높은 편의사양도 대폭 추가해 운전석 통풍시트와 공기청정 모드는 물론, 도어락 연동 아웃사이드 미러 폴딩, 원격시동 스마트키, 개별 타이어 공기압 정보 시스템 등이 더해졌다.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동 및 공조 장치 등 차량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기아 커넥트', 차량 내 간편 결제 시스템 '기아 페이', '홈 IoT 기능' 등 사양도 갖췄다.

판매 가격은 승용 ▲스탠다드 1390만원 ▲프레스티지 1585만원 ▲시그니처 1720만원이다. 2인승 밴 ▲프레스티지 1350만원 ▲프레스티지 스페셜 1390만원으로, 1인승 밴은 ▲프레스티지 1340만원 ▲프레스티지 스페셜 1375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추석 전 자동차 무상점검 받으세요

완성차 5개사 7일까지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내 자동차 제작사와 함께 '2022년 추석연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이날부터 7일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국지엠자동차,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5개사가 참여한다.

우선 현대차는 1302개 서비스 협력사(블루핸즈)에서, 기아는 779개 서비스 협력사(오토큐)에서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현대차는 '마이현대'(myHyundai), 제네시스는 '마이제네시스'(MY GENESIS), 기아는 '기아 VIK'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쿠폰을 내려받아 서비스센터 방문하면 된다.

한국지엠자동차는 9개 직영 서비스센터, 르노코리아자동차는 7개 직영 서비스센터, 쌍용차는

2개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무상점검 기간 동안 지정된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는 고객은 엔진-에어컨 상태,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 브레이크 및 패드 마모도 점검, 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와이퍼, 휴즈 상태 등을 점검 받을 수 있다. 무상점검 후 필요한 경우에는 휴즈 등 일부 소모성 부품을 그 자리에서 무상지 원한다. 또 자동차 운행 중 고장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제작사별 긴급 출동반도 상시 운영하고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가장 가까운 정비소로부터 신속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아우스빌동 6기 및 AET 15기 발대식에서 참가자들이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전기차 정비 전문가 양성 '아우스빌동' 발대식

벤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인재양성 프로그램 '메르세데스-벤츠 AET'(Automotive Electric Traineeship) 15기와 '아우스빌동'(Ausbildung) 6기 발대식을 열고 전기차 등 차량 정비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트레이닝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발대식에는 아우스빌동 참가 교육생 19명과 AET 참가 교육생 15명을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사 소속 아우스빌동 트레이너, 협력 대학 자동차학과 교수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조영아 부사장 등이 참석해 교육과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벤츠 코리아는 2006년 자동차 정비인력 양성 프로그램 'AMT'를 시작해 대학의 자동차 관련 학과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들 중 교육생을 선발했으며, 전기차 시대에 맞춰 AET로 개편해 전기차 정비 전

문가를 선발하고 있다. AET 참가 교육생은 총 20개 교육과정 수료 및 평가를 거쳐 AET 인증 및 전 세계 벤츠 네트워크에서 인정되는 유지 보수 관련 자격 등을 얻게 될 뿐 아니라, 국내 벤츠 공식 네트워크 채용 기회까지 얻게 된다.

또 벤츠 코리아가 2017년 처음 도입한 독일식 일·학습 병행 인재양성 프로그램 '아우스빌동'의 6기 교육생들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자동차 또는 기계 전공 3학년 학생들로 선발됐다. 이들은 벤츠 공식 딜러사에 입사해 앞으로 3년간 현장 실무와 대학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국내 협력 대학 전문 학사 학위와 벤츠 코리아 교육 인증, 독일연방상공회의소 수료증 등을 함께 받게 된다.

특히 벤츠 코리아는 참가 교육생들이 전기차 수리 역량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AET 및 아우스빌동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개편, 지속가능한 미래에 최적화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소음 확 줄인 타이어 호응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공명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공명을 저감 타이어'를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금호타이어의 공명을 저감 타이어는 공명을 감소 효과 극대화를 위해 흡음재 형성 및 재질을 최적화한 'K-Silent(흡음기술)'을 적용했다. 타이어에 부착하는 흡음재의 디자인, 면적, 폭 넓이 등을 감안한 형상 설계가 해당 기술의 핵심이다.

금호타이어는 2014년 'K-Silent'를 개발해 흡음재의 형상과 재질에 대한 국내 및 해외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K-Silent'가 적용된 공명을 저감 타이어는 초고성능 프리미엄 럭셔리 타이어 '마제스티X 솔루스'(MajestyX SOLUS), 전기차용 타이어 '마제스티9(Majesty9) SOLUS TA91 EV'와 '크루젠(CRUGEN) HP71 EV'다. 해당 제품 모두 옵션 사양으로 품이 부착된 공명을 저감 타이어를 마련

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마제스티X에는 승차감 및 제동성능 극대화를 위해 고분산 정밀 실리카가 적용된 컴파운드를 사용했으며, 자사 기존 제품 대비 마모성능과 눈길제동력 등을 대폭 개선해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마제스티9 SOLUS TA91 EV와 크루젠 HP71 EV는 전기차 특성에 맞게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주행성능, 승차감까지 고려한 전기차용 타이어이다. 두 제품 모두 금호타이어 스테디셀러 제품을 기반으로 접단 EV 기술이 집약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공명을 저감 타이어 출시를 기념해 재고 소진 시까지 구매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3개 타이어를 전국 타이어프로 매장에서 구매해 고객에게 프리미엄 골프 보스턴백과 스텐리 워터저그(4개 구매시) 중 하나를 증정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